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신감각파의 여성상에 대한 비교 연구

—李箱·무스잉(穆時英)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금란

한·중 신감각파의 여성상에 대한 비교 연구

—李箱·무스잉(穆時英) 소설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of Women in
Korean and Chinese 'Neo Sense'

-Major Topic for Lee Sang and Mu Shi-ying Novel-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금란

한·중 신감각파의 여성상에 대한 비교 연구

—李箱·무스잉(穆時英) 소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금 란

이금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문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중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사 검토	4
1.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8
2. 한·중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	10
2.1. 한국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	11
2.2. 중국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	14
3. 한·중 신감각과 소설의 신여성상	18
3.1. 가부장제도에 대한 반항	18
3.2. 봉건적 여성관과 근대적 여성관의 갈등	24
4. 李箱과 穆時英 소설의 여성상 비교	29
4.1. 李箱과 穆時英의 여성관	29
4.2. 李箱과 穆時英 소설 속의 신여성상	35
4.3. 두 작가의 여성관이 갖는 한계	41
4.3.1. 李箱 소설의 여성 이미지	41
4.3.2. 穆時英 소설의 여성 이미지	45
5. 결론	51

참고문헌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of Women in Korean and Chinese 'Neo Sense' -Major Topic for Lee Sang and Mu Shi-ying Novel-

Li Jin Lan

Advisor: Prof. Kim, Hyoung-Joo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writer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comparing active writers Lee Sang and Mu Shi-ying appeared in the work of women in 1930.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in the 1930s and China was Semi-colonial, Semi-feudal society. Due to this situation, social contradictions were Deteriorated, and people make a difficult living because of economic depression. So Women had to go out in order to make a living. But in a male dominated patriarchal system, women had to be duplicated in social and physical pressure. 'Nine People Club' and 'Neo Sense' confidence each file. In your novel is a glimpse into the lives of these women. Among them, Lee Sang and Mu Shi-ying phase of the women have in common with other writers, and also-have some differences.

Two of the women in the history of two countries can be considered a special transition in 1930s. Since the 1920s, formal education for women was allowed in two countries, but a small minority of women intellectuals appeared

and with the women movement ideology was accepted ideas through the West and Japan. In addition, women began to be major controversy and mumps.

When 'New Woman' was got more attention to in society, 'Nine People Club' and 'Neo Sense' is combined to start social activities in China and Korea. Two schools were both interested in 'New Woman' in configuration of women as it was reproduced in the works. In addition, it shows realistic life of women who conflict between modern and feudal views. Like other writers of 'Nine People Club' and 'Neo Sense', Lee Sang and Mu Shi-ying also shows social attention to 'New Woman'. But as the writer's thought has a direct influence on characters of the novel, criticism of their own female archetype is composed due to their limited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writer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women's figure between Lee Sang and Mu Shi-ying and the reason for the revelation of th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clarify its position in the literary history.

key words: Nine People Club, Neo Sense, Lee Sang, Mu Shi-ying,
New Woman, Woman Image.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1930년대 한·중의 <구인회>와 <新感覺派>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여성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게 된 원인 및 자국에서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1930년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은 반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한·중 양국의 문학도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1930년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매개로 하여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모더니즘이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이며, 모더니즘적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30년대 <구인회>를 통해서부터이다. 중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新感覺派>라는 문학유파를 통해서 모더니즘 글쓰기가 윤표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중 양국 모더니즘적 글쓰기는 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자체의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에서 1930년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시기였다. 한국에서의 모더니즘은 일본의 식민지 확대와 그에 반항하는 정치적 약화 속에서 나타났다. 구인회 소속의 동인들은 한때 ‘신감각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신감각파라는 호칭은 원래 일본에서 1924년 10월에 창간된 동인지 「문예시대」에 의거했던 젊은 작가들에게 붙여졌던 것으로 이들은 1929년에 다시 ‘12인 구락부’에서 자극을 받아 발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인회 동인들을 ‘신감각파’라 호칭하는 까닭도, 그의 모델인 12인 구락부가 신감각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¹⁾

중국의 <新感覺派>는 중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모더니즘을 실현한 유파이다. 이는 일본의 신감각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유파의 이름도 일본의 신감각파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서구 모더니즘이 고도로 집중된 자본주의 공업화 속에서 탄생했듯이 중국의 모더니즘 또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공업화가 시행될 때, 상하이

1) 김은진, 「구인회와 신감각파」, 『선청어문』 24, 1996.10, p.412.

(上海)에서 탄생하였다.

한·중 두 나라는 모두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사회를 지배 하던 모든 문물제도는 남성위주의 문화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폐쇄적이었다.²⁾ 특히 남존여비 사상과 같은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항상 주목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당시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일찍 수용한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서구의 여성해방에 대한 이론을 먼저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수천 년 동안 동양사회를 지배 해 온 유교적 여성관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³⁾

여성문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인 억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생산 양식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계급과 계층에 따라 여성문제가 드러나는 양상도 다르다. 여성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처럼 계급, 계층 속에 특수한 형태로 내재해 있는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문학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의 전체적 모순을 읽어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에 대한 소설적 탐색은 남녀의 불평등과 대립 구조를 부각시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사회의 구조적 억압에 대한 탐색이 되어야 한다.⁴⁾ 양국은 비슷한 시기에 서구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하여,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신여성’이란 말이 출현하였고, 중국에서는 “5·4” 운동⁵⁾을 계기로 하여 여성해방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1920년대 한·중 두 나라에서는 여성작가들이 출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은 최초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삶을 표현하는 글을 썼다. 하지만 봉건적 잔재의식은 생활 속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 상승을 제약하였다. 이런 사회적인 압력으로 많은 여성 작가들이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1930년대에 들어서서 실제로 활동한 여성 작가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당대 여성들의 삶은 남성작가들에 의하여 그려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편 1930년대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사회로 전락했고, 중

2) 肖霞,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11월, p.20

3) 신창순, 『한·중 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년6월, p.2

4) 손영옥, 「1930년대 여성작가 장편소설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2001년, pp.20~21.

5) “5·4”운동은 1919년 5월4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학생운동이다. “5·4”운동은 북경대학 학생들로부터 발기되었으며, 신문화운동의 계승과 발전이다. 婦女解放은 “5·4”운동 구호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중국 여성운동의 특징은 시종일관 중국의 운명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국 역시 반식민지·반봉건사회가 됨으로서 사회적인 모순은 더욱 두드러졌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향하게 된다. <구인회>와 <新感覺派>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상은 다른 신감각파 작가들과 공통점을 가지는 동시에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李箱은 생후 2년이 되던 해에 부모와 이별을 하고 백부의 장손이 되어주기 위해 양자로 들어간다. 부모와의 이별과 백부의 양자 생활은 李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백모의 학대는 李箱에게 여성공포증까지 형성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이후 李箱의 여성편력에는 물론 李箱의 문학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스잉(穆時英)의 성장배경 역시 순탄치는 않다. 무스잉(穆時英)은 李箱과는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누리다가 16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다. 생활환경이 갑자기 추락함으로써 무스잉(穆時英) 역시 많은 불안감과 심리적인 과동을 겪게 된다. 이런 과동들은 그가 성장하면서 좋아하는 여성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에 대하여 혐오심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李箱의 여성 체험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 체험은 상이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혐오적인 심리는 공통적이다. 또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두 작가는 소설 속의 여성상을 통하여 여성을 견제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구인회>와 <新感覺派> 작가 중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을 선택하여 근대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여성상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1.2. 연구사검토

문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탐구하고 인물을 창조해 나가는 세계라면, 李箱 소설에 나타난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소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또 서사 문학인 소설에 있어서 사건의 주체로서의 인물이 접하는 중요성을 음미할 때 더욱 확연해진다.⁶⁾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李箱은 불세출의 작가인 동시에 폐병으로 요절한 불우한 천재라 인식되어⁷⁾ 있는 것만큼 그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 李箱 소설의 여성상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첫째, 1920년대부터 유행 했던 ‘신여성’의 외모를 갖춘 ‘단발’을 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논문들⁸⁾이다. 그들은 ‘카페’라는 근대적 공간 속에서 ‘카페 여급’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다. 이런 유형의 논문들에서는 주로 1930년대 근대문화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형성된 소비문화와 여성들의 향락에 젖어있는 모습을 주로 분석하면서 李箱 문학의 모더니티를 입증하였다.

둘째, 李箱 소설 속 여성을 실제 李箱 주변의 인물과 연결 짓는 논문들⁹⁾이다. 이런 논의들은 李箱의 성장배경과 주변 인물들을 분석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李箱의 소설에서 그 인물들의 그림자를 찾아내어 맞추어 가는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셋째, 李箱의 소설 속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그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¹⁰⁾ 나은진은 봉건적 속박과 가부장제 전통의식의 억압으로부터 과감하게 일탈하는 여성과 그런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의 변화를 그리고 있었다. 李箱의 소설은 남성을 무능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는 李箱 소설의 특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문학사에서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은 <新感覺派> 소설과 더불어 퇴폐문학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랫동안 매장되어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嚴家

6)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3, p.133

7) 나은진, 「이상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여성문학연구』, p.82.

8) 김경옥, 「이상 소설에 나타난 ‘단발’과 유희자로서의 여성」, 冠嶽語文研究, Vol.24 N.1, 1999.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女給 고찰-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女性文學研究, Vol.- No.3, 2000.

9) 洪廢杓, 「李箱소설의 女性」, 女性問題研究, Vol.17 No.-, 1989.

김면수, 「이상 소설과 ‘妖婦’-錦紅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No.5, 2001.

김환성,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0) 나은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여성문학연구, Vol.- No.6, 2001.

炎)¹¹⁾과 잉궈징(應國靖)¹²⁾에 의해 재평가 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 무스잉(穆時英) 소설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첫째, 무스잉(穆時英) 소설 속의 여성상으로부터 소설 속 여성의 성적 관념과 의식, 그리고 이런 여성상 속에 재현된 무스잉(穆時英)의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들¹³⁾이다. 그들은 무스잉(穆時英)의 실제 인생의 아픔과 고독감이 소설 속 여성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여성상으로 병폐 적이고 도시적인 삶의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둘째, 남녀평등의 의식으로 부터의 출발이다¹⁴⁾. 정옌(鄭艷)은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 것만큼 사회가 발전하려면 여성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무스잉(穆時英) 소설 속의 여성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주의 관점에서 출발한 무스잉(穆時英) 소설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천대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¹⁵⁾. 앤화(嚴華)는 무스잉(穆時英)과 동시대에 활동하던 여성작가 장아이링(張愛玲)¹⁶⁾의 소설 속의 여성상을 비교하면서 무스잉(穆時英) 소설의 여성은 봉건관념에 대한 도전이긴 하였으나 남성 중심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丁圭福은 한국에서의 한중 문학 비교연구를 시간적으로 4단계로 분류 하였다. 첫 단계는 8·15 이전까지이고, 8·15부터 5·16까지를 제2기, 5·16(1961)부터 1960년대를 제3기, 1970년대를 제4기로¹⁷⁾ 분류하였다. 한중문학의 비교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고전문학에 관한 것이었고, 근대문학에 관한 비교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점과

11) 嚴家炎, 「論三十年代的新感覺派小說」, 『中國社會科學』, 1985年 第一期.

12) 應國靖, 「論中國三十年代的“現代派”」, 『中國社會科學』, 1985年 第一期.

13) 章長城, 「現代性愛與性愛中的女性」, 『岳陽職業高等轉科學校學報』, 2001年第2期.

李 玲, 「穆時英小說中的性愛意識」,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年01期.

14) 王連生, 「穆時英小說人物原型簡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1年第3期.

楊迎平, 「同一層面的不同言說-新感覺派小說中的女性形象」, 『文藝理論研究』, 2000年3月.

胡方紅, 「善良的情感世界 同情的女性抒寫-穆時英作品重讀感悟」, 『新疆石油教育學院學報』, 2005年第6期.

賀昌盛, 「從“新感覺”到心理分析-重審“新感覺派”的都市性愛敘事」, 『文學評論』, 2006年第5期.

鄭 艷, 「穆時英小說中的女性形象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年6月.

15) 嚴 華, 「女性主義觀照下的穆時英小說創作」, 汕頭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年.

16) 장아이링(張愛玲)(1920년 음력 9월 30일~1995년 9월 8일), 원명은 장잉(張瑛)이다. 중국에서 유명한 현대 여성작가이다.

17)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년, p.39

무관하지 않다. 한·중 두 나라의 근대문학의 발전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으며 영향 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근대문학에 관한 비교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으나 비슷한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 근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여성에 관한 비교 연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상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이다. 20세기 초, 신여성의 출현 초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처음으로 신여성을 등장시킨 작품들에 대한 비교연구¹⁸⁾와 지역적 근대화가 실현되고 여성해방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발전단계 1920-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신여성상을 다룬 연구¹⁹⁾들이다.

肖霞는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교연구」에서 한·중 양국 여성들이 여성해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세기 초에 여성해방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주요 모티브로 하여 신소설 속에 나타난 신여성상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먼저 한·중 양국의 신여성 출현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또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서도 설명을 더하였다. 그러나 신여성상에만 설명을 집중하여 논의가 흐트러진 바가 없지 않다.

胡薇는 「1930년대 한·중 여성문제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채만식과 老舍의 작품 중 여성문제를 중점적으로 나타낸 작품을 각각 세 편을 선정하여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먼저 두 작가의 성장과정과 세계관을 제시하여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작가의 단 몇 편의 작품만으로는 1930년대 한·중 양국의 여성문제, 그리고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는 제한성을 갖게 된다.²⁰⁾

18) 肖霞,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년.

19) 劉麗雅·宋賢鎬, 「1930년대 한·중 소설의 여성문제 비교연구」, 『비교문학』 제20집, 1995년.

胡薇, 「1930년대 한·중 여성문제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채만식과 老舍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년.

宋賢鎬, 「현진건과 老舍의 비교연구-한·중 현대소설의 賣女주제연구」, 『비교문학』, 제25집, 2000년.

申昌順, 「韓·中 小說의 女性形象 比較研究-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년6월.

조홍매, 「채만식과 라오서(老舍)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6월.

20) 申昌順, 「韓·中 小說의 女性形象 比較研究-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申昌順은 「韓·中 小說의 女性形象 比較研究」에서 여성소설이 대량으로 창작되던 1920~30년대의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여성작가나 남성작가에 한정되지 않고 1920~30년대의 여성소설을 다루었다. 또한 먼저 1920~30년대의 한·중 사회적 현실속의 여성의 삶과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여성의 각성, 그리고 여성작가의 출현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부터 볼 때 신여성은 당시의 사회적인 추세임을 제시하여 주었다. 하지만 한·중 소설의 여성상을 살펴보는 논의에서는 여성작가들의 소설보다는 남성작가들의 소설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여성작가 혹은 남성작가라는 性別적인 제한을 하지 않은 연구이기에 한·중 양국의 보편성을 살펴보는 데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개별적 작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위의 논의를 살펴보았듯이 한·중 양국의 여성상에 관한 비교 연구는 여성문학이 활성화 되던 1920~30년대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20~30년대 한·중 양국은 비록 외세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역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양국에서는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세계사적 사조를 받아들인 시기였다. 근래에 들어와서 모더니즘을 실현한 문학유파라는데 무게를 두면서 <구인회>와 <新感覺派> 비교 연구²¹⁾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구인회>와 <新感覺派>가 도시적 삶과 여성해방론에 대한 공통적 분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여성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의 한·중 여성상에 대한 비교논문들을 참고로 이상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 속에서 재현된 신여성상과 작가의식에 의하여 체현된 여성상 두 가지를 추출하여 그 시대의 한·중 양국에서 모더니즘 소설 창작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린 두 작가를 재조명 하는데 의미를 둔다.

博士學位論文, 2004년6월, pp.4~5.

21) 장운기,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년.

김명학, 「朴泰遠과 穆時英 소설 비교 연구-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金藝玉, 「穆時英·李箱小說比較研究」,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年.

1.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비교문학의 연구 방법으로는 영향과 모방, 수용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두 학파에 의해 형성된 비교 연구의 갈래를 말하는 것이다. 프랑스 학파(영향비교)와 미국 학파(수용연구)가 그것인데, 영향연구란 문학작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유사성)를 실질적 증거를 통하여 규명하는 방법이며, 수용연구는 문학을 하나의 총체로 생각하고 작품과 작품이 지닌 공통적 특질을 구명하여 문학의 세계성, 즉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는 양국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후자는 서로 사실관계는 없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으로 후자의 범위는 매우 넓은 것이다.²²⁾

한·중 두 나라의 근대적 문학은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으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자체의 특성에 맞게 변용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상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평행비교²³⁾의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크게 5개 장절로 구성되었다.

제2장 ‘한·중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에서는 1930년대 한·중 두 나라에서 신여성의 출현과 근대적 여성의식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근대적 도시의 등장은 서구 여성해방론의 유입에 실마리를 마련하여 주었고, 서구 여성해방론의 유입으로 한·중 두 나라에서 여성의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여성은 비로소 가부장제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는 사회적으로, 문학사적으로 모두 과도기이다. 근대 도시의 사회적 배경과 신여성의 출현과 발전상황을 취급함으로써 과도기에 처한 사회적인 근대여성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시기의 작품에 재현된 여성은 단순한 당대의 여성상만은 아니다. 작가들의 계몽의식과 그의식의 바탕이 되는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영향을 받는다.²⁴⁾ 하여 여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살펴보는 것은 한·중 신감각과 여성상을 비교 연구

22) 올리히 바이스수타인, 『비교문학론』, 이영유 역, 홍성사, 1981, pp.65~69, 김효중, 「비교문학적 방법과 국문학연구」, 『영남어문학』 제8집, 1981, 참조.

23) 徐志孝, 『中國比較文學全史』, 湖北:湖北教育出版社, 1996, pp.149~150.

중국에서는 위의 두 학파의 연구방법을 각각 영향비교와 평행비교라고 명명한다. 말하자면 영향비교란 프랑스 학파의 연구방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평행비교란 미국학파의 연구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평행비교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지만 공통점을 보이고 문학적 의의가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민족문학의 작가 작품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24) 肖霞,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p.15.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3장 ‘한·중 신감각과 소설의 신여성상’에서는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을 제외한 다른 신감각과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봉건의식과 근대사상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현실에서의 신여성상이 소설 속에서는 어떠한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근대적 사고방식이 여성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현존하는 사회에서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제한 속에서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제4장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소설의 여성상 비교’에서는 우선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을 살펴 본 다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비교분석 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도 다른 <구인회>나 <新感覺派>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여성상을 재현했다는 것에 주목 할 것이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은 모두 서구를 동경한 작가이고, 근대적인 것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들 역시 다른 모더니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여성에 눈길을 돌렸으며, 그러한 진보적인 신여성들을 소설 속에서 재현하였다.

두 번째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두 작가의 의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성상에 주목 할 것이다. 작가의식은 소설의 인물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우선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상을 진일보 비교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남녀의 관계가 주요 요소를 차지하는 李箱의 「단발」,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종생기」와 무스잉(穆時英)의 「Craven A」, 「검은 목단(黑牧丹)」,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 「상해의 폭스 트룟(上海的狐步舞)」 등 작품들을 주요 모티브로 할 것이며 필요시 다른 작품들도 언급할 것이다.

2. 한·중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배경

1930년대는 한·중 역사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한·중 두 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공식적인 여성 교육이 허용되었고, 극소수이지만 유학생 출신의 여성 지식인이 등장하였으며 서구와 일본을 통해 여성운동 이념과 사상이 수용되었다. 또한 확대된 공적 담론 공간에서 여성이 주요한 논란거리이자 불거리로 등장하였다.

1930년대 여성상 중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신여성’이었다. 신여성이란 새로운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새 시대의 역군·신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노동자, 생산여성농민도 포함되나 주로 신교육을 받은 지식층 여성들, 전문직업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선도한 전위적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다.²⁵⁾ 신여성 현상은 영국의 빅토리아 후기(1883~1990)시대에 처음 나타나서 곧 다른 여러 사회에서 등장한 세계적 현상이었다. 각 사회에서 신여성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초기 세대들로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추구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신여성’이라는 어휘는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기존의 결혼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명하는 일군의 집단을 가리켰으며, 다양하고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²⁶⁾ 신여성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모성과 가족에 대한 강조로부터 여성자체의 존재의 식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이 근대로 이행하기 전까지 통치 이념은 유교사상이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속박이 이루어져 왔었다. 新女性 상이 과거의 사회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여성을 가리키는 것만큼, 한·중 양국의 新女性 상은 한·중 두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배하여 온 봉건 윤리의식을 깨뜨리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지배하여왔던 봉건윤리의식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고, 남성들과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여성교육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성의식의 사회적 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두 나라에서 신감각과 소설의 창작 활동이 가

25) 문근섭·문윤걸·국선희 지음, 『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2001년, pp.364~365.

26)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p.21.

장 왕성하던 시기가 1930년대인 것만큼, 이 시기 신여성의 근대적 의식성장 과정과 근대적 의식으로 성장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한·중 신 감각과 소설의 여성상을 비교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1. 한국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

근대의 시작인 개화기를 통해 기독교 및 근대의 산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근대 산물들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교육의 영역에서는 소외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교육받기 위하여 여성을 위한 학교설립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886년 스크랜톤 부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성 사립학교인 이화학당이 그 시초였다²⁷⁾.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이화학당은 개항 10년이 지난 1886년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창설되었다²⁸⁾. 이후 이화 학당과 같은 근대 교육시설들이 점차 확대 발전하면서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대 사상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 교육의 시작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근대교육이 확산되고, 교육받은 여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시기는 1920-193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여성교육 기관은 사회의 관심대상이 된 동시에 새 시대에 적합한 여성을 생산해낼 책임을 안게 된다. 근대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은 여성교육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것이다.²⁹⁾

여성의 전문 교육은 1910년 이화학당에 이화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7)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고갑희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예이연, 2004, p.34.

28)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년, p.276.

29) 이남경, 「근대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타자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2월, pp.2~3

1914년에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1925년 법령에 의해 전문학교로 개칭되기까지 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일제 말기인 1939년에는 일반 여자전문학교로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여자 전문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보육학교인데, 이화보육학교가 1914년에, 중앙보육학교가 1922년에, 경성보육학교가 192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1928년에 설립된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를 합하면 1934년 2월 말 당시 5개 정도의 전문학교에 435명의 여성이 재학 중이었다.³⁰⁾ 1935년에는 관립으로 경성여자사범학교, 1938년에는 사립으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³¹⁾

교육과정 속에서 여성은 선교에 의한 서구의 남녀평등 사상과 신교육을 통한 근대적 육구의 증대로 새로운 의식과 자각을 통해 신여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사회적으로 민족 계몽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봉건적 여성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대항하는 여성해방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1920년 『東亞日報』에 발표된 「여성해방의 문제」란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자의 인격과 교육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의 사회적 자유활동을 권장하라 하노니 재래 조선에서는 여자를 「일개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즉 「인의 관계되는 바」 「妻」나 「母」로만 관찰하여 온지라 그 생활이 다만 가정 내에 한함이 당연하도다. 그러나 여자도 또한 사람이라 그 관계 어찌 가정에만 한할 것이리오... 단지 여자는 그 자연적 생리적 조직과 요구에 의하여 가정을 성하며 人의 妻나 人의 母가 되는 동시에 일개인으로 사회에 활동하여 문운에 공헌할지니... 이 어찌 남자가 가정을 성하여 人의 「夫」와 「父」가 되는 동시에 사회에 활동하는 것과 다름이 있으리오 ... 요컨대 여자해방 문제는 그 인격을 인정하며 그 재능을 발달함에 재하니 이는 실로 신도덕의 근본이다.³²⁾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여성해방론의 유입으로 인하여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적 현모양처 상을 부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남녀평등을 요구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없으며,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하면서 교육만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것

30) 주요섭, 「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4월호, 1934년, p.31.

31) 김경일, 앞의 책, p.286.

32) 『東亞日報』, 1920.6.2. (曹惠鉉, 「한일 근대 「신여성」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12월, pp.18~19. 재인용)

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개화기 여성교육이 중시를 받아왔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성교육이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 나간 이 시점에서는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공헌할 수 있는 신여성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

신여성들의 의식은 서구의 여성해방론의 하나인 자유주의 여권론에 영향을 받아 구시대 여성상으로부터의 자각적 탈피를 의도하는 신여성들이 외양의 서구화 뿐만 아니라 과감한 주장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연애, 자유결혼, 정조, 이혼, 신생활 등과 같은 그들의 주장은 종래의 여성 억압적 결혼제도로부터의 여성해방에 대한 바로 여성자신들의 의사표출이었다. 신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몸소 실천하여 전통적인 윤리관에 위배되는 자유분방한 연애나 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여성해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³³⁾ 이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교차되고 있었고, 기존의 사회적 관념을 깨뜨리는 생활태도에 따른 행동양식은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단발이나, 개량한복과 양장, 하이힐과 같은 외형적 모습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었고, 자유분방한 연애와 성생활은 서구의 유행을 지각없이 따르는 것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朝鮮日報』에서는 또 다른 신여성상에 관한 문장을 발표하였다.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 가서 신교육을 받고 돌아와 일본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신여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옷 쓰고 내외는 아니할지라도 일본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구두를 신은 구여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양장하고 단발한 모던걸들의 그 머리 속에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노력과 포부가 조금도 없는 때에는 그것은 양장한 구여성에 지나지 않습니다.³⁴⁾

이와 같이 대중 계몽 및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운동가들은 초기 신여성론 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초기 신여성들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신여성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식민지 상황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을 망각하지 않고, 여성문제를 사

33) 曹惠鉉, 위의 논문, 2003년 12월, p.20.

34) 『朝鮮日報』, 1928. 4. 7. (曹惠鉉, 위의 논문, 2003년 12월, p.21. 재인용)

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여성의 문제를 독립운동론, 기독교 사상, 사회주의 이론 등의 관념 세계와 결부시켜 사회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초기 신여성들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이 시기의 신 여성상은 단순히 외형적 단발이나 양장이 아닌 진정한 근대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다.

근대의 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았고, 교육받은 여성들은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 내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동한 시기에 따라 부동한 의식이 형성되었고, 사회적으로 그에 따른 새로운 신여성상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신여성 집단이 형성되었다. 비록 교육받은 신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이 전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여성관을 깨뜨리고 일반 여성들을 각성시켰다는 점, 즉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중국의 근대적 여성의식 형성 과정

鴉片戰爭(1839-1842)이후 불평등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입하였고,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변동을 겪게 되었다. 특히 교회여학교의 건립은 중국여성들에게 커다란 변혁과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고, 많은 지식인 여성들을 배출 했다. 교회여학교의 건립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여성을 속박하여 왔던 “여성은 모르는 것이 덕이다(女子無才便是德)”라는 봉건의식을 타파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비록 교회여학교의 건립은 서구열강들의 중국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지긴 했었지만, 객관적으로 중국 근대 여성교육을 자극 시켰고, 여성들로 하여금 봉건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탈출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에서는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³⁶⁾에서 일본이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35) 曹惠鉉, 위의 논문, 2003년 12월, p.21.

일본이 서구의 선진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을 중요시한데 있다고 인지하였다. 또한 현 상황을 타파하려면 반드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깨닫고 科擧制度를 폐지하고 學制制度를 실시하였다. 여성교육이 처음으로 합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1907년 3월 8일에 반포된 “女子小學堂章程”와 “女子師範學堂章程”³⁷⁾이다. 初等、中等、高等 단계적 교육으로 나누어진 교육을 받고 있는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교육은 小學堂을 졸업하면 직접 師範學堂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초기 여성교육이 남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들이 여성교육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남편을 보조하고 자식 교육을 잘 하기 위한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초기 목표와는 달리 이런 제도들은 근대적인 신여성들을 배출 하고 여성교육의 발전에 전제적 조건과 기초를 마련하여 주었다. 하여 1912년 2월에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普通教育暫行辦法”³⁸⁾이 반포 되었고 男女同校을 인정하였다.

중국에서 ‘신여성’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부터이다. 1906년 연빈(燕斌)과 리우칭시아(劉靑霞)가 창간한 『중국신여계잡지(中國新女界雜誌)』에서 중국의 신여성이란 현대지식과 애국심 그리고 독립된 인격을 갖추고 능히 남성과 타인을 경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³⁹⁾ 이는 중국에서도 이미 신여성이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여자들이 만약 남자와 동등한 경제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좋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 헛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녀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즉 동성 간에도 서로 차이를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지위가 동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동등해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여성과 남성이 있게 되고 비로소 탄식과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⁴⁰⁾

36) 갑오중일전쟁(1894~1895)의 실패로 인하여 중국은 “南京條約”에 이어 “馬關條約”을 체결하였다.

마관조약 주요내용: 1. 中國은 朝鮮의 獨立自主를 승인하며, 中-朝 모든 관계를 중단한다.

2. 中國은 遼東半島、臺灣、澎湖列島를 日本에게 분할한다.

3. 日本측 군비 銀 2억냥을 배상 해준다.

4. 重庚, 沙市, 蘇州, 杭州를 무역항구로 개방한다.

5. 日本은 中國의 通商港口에 공장을 개설할 수 있다.

37) 舒新城 編, 『中國近代教育史資料(下冊)』, 北京:人民教育出版社, 1961年, pp.810~811.

38) 宋恩榮·章咸, 『中華民國教育法規選編(1912~1949)』, 南京:江蘇教育出版社, 1990年 7月, p.194.

39) 이수영, 「중국 근대 여성교육론의 특징」,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9. 재인용

40) 魯迅, 「关于妇女解放」, 『魯迅全集』4卷, 北京:北京出版社, 1973, p. 598. (所以一切女子, 倘不得和男子同等的经济权, 我以为所有好名目, 就都是空话. 自然, 在生理和心理上, 男女是差别的; 即在同性

위의 예문은 루쉰(魯迅)의 작품 중 한 단락이다. 루쉰(魯迅)은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여성의 문제에 눈을 돌린 작가이다. 이 예문에서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여성이 경제독립을 할 때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평등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여성 해방에 대한 행동방향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양장이나 하이힐 같은 외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1919년 5·4운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성해방”을 외치기까지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중국 여성들을 지배하여 온 봉건의식을 비판하였다. 천두썬우(陳獨秀)는 「孔敎與現代生活⁴¹⁾」에서 사회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고,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성에 의존해야 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었던 儒敎思想과는 달리 여성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사상들은 救國思想들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5·4 신문화운동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여성작가가 많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5·4신문화운동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인정하고 연애와 결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풍조가 도시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중국의 젊은이들을 신변 가까이에서 옥죄고 있던 것이 바로 부모가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정해주는 이와 같은 결혼제도였으므로 연애와 결혼의 자유문제는 5·4신문화운동에서의 핵심주제이기도 했다.⁴²⁾

이 시기 출판된 여성신문과 잡지는 약 30여종으로 <女子世界>, <中國女報>, <新洲女報>, <中國新世界>, <女報> 등이 있었는데 주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흐름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지식인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하였다. 상해 학생들이 북경 정부가 국민의 적이 된 것에 항의하여 전체적으로 수업거부를 거행

中，彼此也都不免有差別的，然而地位却應該同等。必須地位同等之後，才会有真的女人和男人，才會消失了嘆息和苦痛。

41) 『新青年』，1919年 12月 1日，第1期。我們相信，尊重婦女的個性和權利是目前社會進步的實際需要。同時我們也希望婦女自己也能充分認識到她們對社會的責任。(신창순, 앞의 논문, p.20 재인용)

42) 윤혜영, 「근대 중국의 신여성」, 『漢城史學』第二十四輯, 2009년 2월, p.175.

했을 때 「상해시보(上海時報)」는 그 일에 대하여 「남녀가 함께 일을 도모하다(男女一同作事)」라는 제목으로 “상해 학생연합회는 처음에 조직되었을 때부터 줄곧 남녀가 함께 일을 처리하였고 회의, 사무, 진행도 빨라서 외면적으로 하나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고 교육을 받은 남녀가 같이 일하는 것이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점차 남녀의 한계가 없어지고 각기 자기의 책임을 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진보가 될 것이다.”⁴³⁾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중국 여성들은 직접 봉건제도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적 경험을 쌓아갔다.

중국에서의 신여성은 救國運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출현하였고, 근대적 공업화가 이루어진 상하이(上海)에서 발전되고 확산되어갔다. 신여성들은 사회에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활발히 운동하여 중국 해방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43) 박지훈 역, 『중국여성운동사』, 한국여성개발원, 1991년, p.98. (신창순, 앞의 논문, p.23. 재인용.)

3. 한·중 신감각과 소설의 신여성상

사회적으로 ‘신여성’이 주목 받고 있을 무렵, 한·중 두 나라에서는 모더니즘 글쓰기를 시도하는 <구인회>와 <新感覺派>가 결성되어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중 두 나라에서의 ‘신여성’에 관한 인식은 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여성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자유연애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중 두 나라의 근대적 사상들은 자생적인 역사적 발전경로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의식 되었기에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가 극심하게 충돌 될 수밖에 없었다.⁴⁴⁾

하여 제3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한·중 신감각과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공통으로 체현되었는지 알아 볼 것이다.

3.1. 가부장제도에 대한 반항

한국의 가부장제도는 민족국가 형성과 왕권 강화 및 지배 권력의 계층적 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으며 부계 혈연 가족이 사회조직의 기초 단위를 이루었다. 특히 유교적 통치 이념인 충효의 윤리와 지배 복종의 신분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가족제도의 이념적 형태는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더욱 철저하게 구현되었다. 이것은 그 실천이 양반 지배층은 물론 상민 천민 층에 이르기까지 일 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⁵⁾

‘가부장제’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남성지배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역사상의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글자의 의미 그대로는 ‘부친의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래 인류학자가 사용한 용어로서 한 사람의 고령남성(가부장)이 다른 가족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사회구조를 가리킨다.⁴⁶⁾ 가부장제의 기본구성 단위는 결국 가정이다. 즉 결혼, 결혼

44) 문근섭·문윤걸·국선희, 『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2001년, p.13.

45) 신창순, 앞의 논문, p.36.

이란,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동과 가치관을 요구하는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사회제도로 간주되고 있다.⁴⁷⁾ 여성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속박 받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어머니로만 존재해야만 했다. 근대사회로의 이행으로 근대교육을 받음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20·30년대 한·중 사회를 풍미한 자유연애 사상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연애결혼을 갈망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성은 이미 20세기를 전후로 엄격한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를 벗어나 성 혁명과 성 개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서구사회에서는 혼외 성관계에 대한 금기가 약화되고 성 쾌락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성관습을 벗어난 혼전 성의 자유, 여성의 자율적인 성 추구, 동성애, 변태적인 성행위 등 다양한 성형태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 문화의 변화는 서구의 역사적 변화과정 속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함으로써 성의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여권의식의 향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남녀평등이 요구되었고 이것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성문화를 해체하는 성 혁명으로 발전케 한 결과이기도 하다. 서구의 현대 성 문화가 한·중 두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한·중 사회는 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해체되고 성 문화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통적 성윤리에 얽매어 있던 부부관계도 애정과 성생활을 중시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의 성생활 못지않게 여성의 성생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⁴⁸⁾ 이러한 사상들은 한·중 두 나라에서 신여성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성적인 면에서도 남녀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여성에게만 강조되어 왔던 여성의 정조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였다.

성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현상은 이태준의 『딸삼형제』에서도 드러난다.

“남자가 처널 요구하는데 여자가 총각을 요구하는게 잘못이야요? 무리야요?”

46) 리샤터틀, 페미니즘 사진, p.326.

47) 김택호, 「이태준 장편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p.109.

48) 문근섭·문윤걸·국선희, 『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2001년, p.132.

허영이야요? 대답하시래두?”

“그래 내가 총각이 아니라서 처녀대루 나한텐 오긴 아까워서 몸을 미리 더럽혔나?”

“해운대루 동래온천으루 다녔다며?”

“거짓말두 못해요? 어저나 불라구 시험한 거야요. 참 뻔뻔하세요. 자긴 총각이 아니면서 내가 처녀가 아니라니깐 그렇게 낙망을 하세요? 우리 여자더러 밤낮 허영, 허영, 하지만 그따위 과대망상 같은 허영은 여자한테 없어요. 자긴 처녀가 아니면서 남자가 총각이 아니라구 구박하는 여자 보셨어요, 어디서?”

(『딸삼형제』 중)

위의 대화는 『딸삼형제』에서 셋째 딸 송정국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송정국의 여학교 시절의 은사였던 민 선생과의 대화이다. 송정국은 ‘남자가 처녀를 요구하는데 여자가 총각을 요구하는게 잘못이야요? 무리야요? 허영이야요?’ 라고 민 선생에게 되묻는 것으로 신여성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준다. 반면, 민 선생은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남성중심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송정국은 민 선생과 타협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한다. 신여성으로서의 송정국은 결혼을 포기한 후 예술가이자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여 능력 있는 사회적 활동가로서 자아성취를 한다.

행복은 사람마다 구한다. 그러나 혼령기의 여성처럼 목마르라! 딱한 사정도 사람마다 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의 것처럼 미소하라! 더구나 여성도 가정만이 그들의 소재지일 수는 없는 시대이다. 그들의 행복권은 날로 넓어가며 있는 것이다. 재봉시간에 지은 수놓은 에프론을 입고 신랑을 위해 아침 채단을 구상하는 데도 여성의 행복은 있지만, 노트는 덮어버린 채 대현실에 직면해서 민중을 위해 어떤 임무와 어떤 무대의 히로인이 되는 데도 현대여성의 당당한 행복의 깃발은 펴려있는 것이다.

(『딸삼형제』 중)

위의 예문은 『딸삼형제』에서 송정국이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송정국이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두 언니인 송정매와 송정란의 결혼생활을 목격한 후에 얻게 된 결혼생활에

대한 환멸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 환멸감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자아성취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봉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환멸감이다.⁴⁹⁾

1930년대에 근대적 사상이 유입되긴 하였지만 봉건적 인습도 사라지지 않았었다. 근대적 사상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자아정립을 요구하였고, 봉건적 인습은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가정만이 여성의 소재지 일 수는 없는 시대’이고 ‘대 현실에 직면해서 민중을 위해 어떤 임무와 어떤 무대의 히로인이 되는 데도 현대여성의 당당한 행복의 깃발은 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성들에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가부장제 중심의 가정은 여성의 자아성취를 방해하는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억압을 강요받아왔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제란 큰 틀 속에서 男尊女卑와 三從之道, 七去之惡이란 울가미로 하여 여성들의 삶은 참혹한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⁵⁰⁾

위에서 밝혔듯이 1930년대는 자유연애사상이 풍미하고 연애결혼이 유행을 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근대적 사상들은 과거의 부모님의 의견과 중매인을 거쳐야만 인정을 받아왔던(父母之命、媒妁之言) 혼인제도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新感覺派> 작가 스저춘(施蜚存)⁵¹⁾ 소설 속 여성들은 부모님이 정한 결혼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운명에 순응 할 수 없어 가출하는 행위로서 가부장제도에 반항하고 있었다.

스저춘(施蜚存)은 봉건적 가부장제도 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사자자리 혜성(獅子座流星)』 중, 쥐어페이산 부인(卓佩珊夫人)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부인은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부인을 돌려보낸다. 사실 부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기질적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성의 질병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49) 김택호, 「이태준 장편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p.111.

50) 신창순, 앞의 논문, p.40.

51) 스저춘(施蜚存)(1905년 12월 3일~2003년 11월 19일) 원명은 스청평(施靑萍)이고, 필명으로는 청평(靑萍), 안화(安華), 쉘웨이(薛惠), 리완허(李萬鶴), 베이산(北山)등이다. 그는 중국 현대 저명한 작가이고 문학 번역가이며 학자이다. 華東師範大學 중문학과 교수로 있었다.

이웃음을 보여주고 있다. .

스저춘(施蜚存)은 사회적인 억압으로 심병까지 지니고 있는 여성들을 통하여 봉건적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억압을 표현해내려고 하였고, 이로부터 가부장제도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부장제도가 부여한 결혼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기에, 스저춘(施蜚存)의 소설 『안개(霧)』 중, 쑤진(素貞)아씨는 스물여덟이 되도록 중매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가부장제가 부여한 결혼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고,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부장제도 하에서 결혼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현모양처상을 버리려고 하였다. 그녀는 결혼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회로 향하여 자아성취를 하는 근대적 여성으로 탈바꿈하려고 하였다.

스저춘(施蜚存)의 소설 속 여성들은 이처럼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부장제도에 반항하는 가하면, 가출하는 행위로서도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한다.

스저춘(施蜚存)의 또 다른 소설 『아수(阿秀)』 중, 여주인공 아씨이우(阿秀)는 부모님의 핍박으로 부동산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췌에쨌화(薛建華)의 일곱 번째 첩실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 집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하지만 아씨이우(阿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탄한다.

“휴, 나의 운명은 왜 이럴 가? 육체는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악세사리와 옷들이란 말인가. 그는 마치 애완동물처럼 나를 키우고 있다니... 이런 몸쓸 중매쟁이!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덕을 쌓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가?”

"지금 내가 결혼을 한 걸까? 내가 남편이 있긴 한 걸까? ..."

"나를 사랑 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지만, 최소한 사람취급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닌 가... ..."

(『아씨이우(阿秀)』 중에서)

“哎，我是生就了什么命运呢？身子给人家随便的糟踏，只换到一点首饰，衣裳。象猪猡似的给他养着。… … 那个做中人的老婆子，你是造孽了。你将来不会有好结局的，这种事体可以做德吗？”

“我现在这样的算是已经出嫁了吗？我有了一个丈夫吗？… … ”

“待我好一些倒也罢了… … 总要把我当人待才是啊 … … ”

(『阿秀』 52)中)

위의 아씨이우(阿秀)의 말은 가부장적인 색채가 짙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일곱 번째 첩실이기에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치르고, 남편은 아내를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중도 해주지도 않는다. 이런 생활 속에서 아씨이우(阿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 실망하고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 … 영원히 이대로 이곳에 갇혀있어야만 하는 걸까? … …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안 돼, 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 난 하루도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난 떠나야 해! 다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난 떠나야 해. … … 집 나가서 어떻게 살든 여기보단 나를 꺼야. 나 왜 여기에 있을 러고 했지 … …”

(『아씨이우(阿秀)』 중에서)

“我是可伶的啊 … … 我将永远地被关在这里吗? … … 我是多么不快乐啊! 不能, 我不能再在这里了, 我一天也不能再往下去了! 我要走! 我就是没有别的机会也要走了。… … 我出去之后, 随便怎样, 比在这里总归好一些。… … 我为什么要再在这里呢 … …”

(『阿秀』 53)中)

위의 예문은 아씨이우(阿秀)는가 비합리적인 결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장면이다. 봉건적 가부장제도는 여성은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아씨이우(阿秀)는 남성에게 무조건 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싫었고, 가출을 실행함으로써 봉건적 가부장제도에 반항하고 양값음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근대소설에 있어서의 여성의 자아정립은 외적이며 역사적인 방향을 지향한다. 근대적 사상은 아씨이우(阿秀)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왔고, 이에 봉건적 가부장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52) 吳福輝 編, 『施蜚存作品新編』, 北京:人民文學出版社出版, 2009年, p.122.

53) 吳福輝 編, 위의 책, 2009年, p.126.

다. 아씨이우(阿秀)의 가출은 가부장제도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항이었고, 이러한 반항은 1930년대 봉건적 가부장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는 위계질서의 위반이었으며, 필연적으로 자살이라는 파멸을 동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한·중 두 나라의 <구인회>와 <新感覺派> 소설들에서는 모두 가부장제도의 틀을 깨려고 하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한국 소설들에서는 여성들이 과감하게 자신의 의사표출을 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소설들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중 두 나라 사회적 여성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식민지 근대화를 이루어 나아갔다. 또한 3·1운동으로 여성 해방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었고, 여성의 사회적인 자아정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국 사회는 반식민지·반봉건사회 속에서 근대화는 공업이 고도로 발전된 상하이(上海)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고, 전반 사회를 볼 때, 근대적인 것보다는 봉건 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현존하고 있었다. 비록 중국 사회에서도 여성해방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한국 소설 속의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자아성취를 하는 신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소설 속의 여성들은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 고뇌 끝에 신여성으로 탈바꿈하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3.2. 봉건적 여성관과 근대적 여성관의 갈등

과도기적 시점에는 새것과 낡은 것이 병존한다. 1930년대 한·중 두 나라에서의 근대적 여성의식성장은 봉건적 인습과 충돌하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한·중

양국의 <구인회>와 <新感覺派>의 소설 속에서도 보여 지는 부분이다.

「성탄제」는 <구인회>의 대표적인 작가 박태원의 초기 소설에 속한다. 이 작품은 영이와 순이 두 자매의 이야기이다. 언니 영이는 여급생활을 하면서 식구들을 부양한다. 동생 순이도 영이의 여급생활로 벌어들인 돈으로 공부를 하지만 언니인 영이를 창피해하고 멸시한다.

흥! 걸핏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들의 희생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버리지만, 그때, 참말 자기가 하기 싫은 노릇이면야 단 하루라도 할 까닭이 있나? 술먹구, 남자들하구 회롱하구, 그러는게 자기는 역시 재밌어서 그러는게지 뭐야? 그렇지 뭐야? 그래 참말 맘에 없는게면 왜 가끔 밤중에 부랑자는 집안으로 끌어 드리는 거야? 누가 언제 그런 것까지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

(「성탄제」 중)

영이는 여급이라는 직업으로 하여 동생 순이에게 철저히 무시당한다. 하지만 영이가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책임은 순이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학교를 중퇴하고, 순이 역시 여급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처럼 순이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에 속하는 여성이지만 생활고에 부딪쳐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가족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영이는 봉건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봉건적 인습에 묶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박태원의 「女人盛裝」에서도 보여 진다.

“저희는 그 사람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식후에 제게도 포도주를 권해요. 저는 물론 싫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오라범택이 자기도 먹으려 자꾸 한 잔만 먹어보라는군요……그도 다아 한속이었어요……제가 먹은 포도주는 그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女人盛裝」 중)

위의 예문은 「女人盛裝」중 숙자가 사촌오빠 내외의 께임에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숙자는 이 사건으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라는 부잣집 장남에게 시집을 간다. 숙자는 비록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이지만

그녀에게는 봉건적 윤리의식인 정조관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녁 때 들어오건 물어보세요. 저는 아무 말씀 못 하겠어요.” …… “참 그엔 출장을 나갔는지? 나가고 앉고 그애더러 물어볼게 뭐 있니? 네가 말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 “그래두 출장갔다 들어오건 말씀하세요. 제 입으론 말씀 못하겠어요.”

(「女人盛裝」중)

숙자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숙경(철수의 애인)은 숙자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숙자는 위의 예문과 같이 답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 상호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처럼 숙자는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감수성에 빠져있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성탄제」의 영이나 「女人盛裝」의 숙자 모두 근대적 신교육과 근대적 사상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여성상이다.

<新感覺派> 작가 류나오우(劉呐鷗)의 소설 중 대부분의 여성은 근대적인 여성으로, 남성의 구속과 억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남성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품 중의 여성들은 나이트클럽, 카페와 같은 근대적 산물을 즐기면서 남성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행위 자체가 가부장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봉건사회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런 여성상들은 봉건사회에서 볼 수 없는 여성상으로 그려진 것은 사실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근대 여성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반기를 들고 여성을 위하여 여성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설 속의 여성들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환상적인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었을 뿐 자아정체성을 찾거나 자아성취를 하지는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소비와 향락에만 빠져있는 모던-겉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가벼이 겁먹는 한쌍의 밝은 눈동자, 지적인 이마, 그리고 그 위의 바람에 따라 날리는 짧은 앞머리, 아담하지만 높은 유럽식의 코, 이 원형의 입모양과 다물락말락한 도톰한 입술.”“그는 거리를 거닐 때의 그녀의 율동하는 몸놀림과 하반신의 민첩한 동작들이 떠오른다. 봉긋하게 솟은 그녀의 가슴과 부드럽고 미끈하게 잘 빠진 다리.”

(「유희(遊戯)」중)

“这一对很容易受惊的明眸，这个理智的前额，和在它上面随风飘动的短发，这个瘦小而隆直的希腊式的鼻子，这个圆形的嘴型和它上下若离若合的丰腻的嘴唇。”“他想起她在街上行走时全身的运动和腰段以下的敏捷的动作。她那高耸起来的胸脯，那柔滑的鳗鱼式的下节。”

(「游戏」54)中)

“그의 높게 솟은 지적인 코와 민첩하면서도 쉽게 겁먹지 않는 눈썹미.”“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면 무르익어 터질 듯 한 석류를 방불케 하는 작고 빨간 입술이다.”“팔다리는 아담하지만 가슴과 허리사이의 풍만한 S라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육의 탄성을 떠오르게 만든다.”

(「풍경(風景)」중)

“那个理智的直线的鼻子和那对敏活而不容易受惊的眼睛。”“最有特长的却那一颗小小的，过于成熟而破开了的石榴一样的神经质的嘴唇。”“肢体虽是娇小的，但胸前和腰边处处的丰腻的曲线是会使人想起肌肉的弹力的。”

(「风景」55)中)

위의 두 단락의 예문은 류나오우(劉炳鷗)의 작품 중 여성이 남성에게 비취지는 모습이다. 위의 여성에 대한 묘사에서는 외모적인 특징만 빼면 그 어디에서든 근대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洋裝을 한 것과 하이힐을 신은 것은 다만 남성을 유혹하기 위함이다. 비록 그녀들이 기존의 소극적이던 여성의 모습에서 탈출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자아성취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54) 劉旭 編, 『都市風景線』,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4年, p.6.

55) 劉旭 編, 위의 책, p.21.

이로부터 <구인회>와 <新感覺派> 소설 속에서 봉건적인 여성관과 근대적인 여성관의 갈등하는 모습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구인회> 소설에서의 갈등하는 여성들은 근대적 지식은 갖추었지만, 소극적이고 봉건적 틀에 갇혀 사는 모습으로 정립된다. 하지만 <新感覺派> 소설에서는 외모적인 것과 행동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대적 지식은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신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보였다. 특히 단발이나, 개량한복과 양장, 하이힐과 같은 외형적 모습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사회적으로 신여성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신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것은 최초 남성들이 여성교육을 보급시킨 취지와도 맞물렸다.

1930년대에 들어서 新女性 이미지는 특히 상하이(上海)와 같은 현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했다.⁵⁶⁾ 이 시기 상하이(上海)는 ‘동방의 파리(東方巴黎)’라고 불리 울 정도로 변화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 시기의 洋裝과 하이힐은 다만 유행에 불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인회> 소설에서는 근대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봉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新感覺派> 소설에서는 근대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로 그려졌다.

56) 홍지순, 「현대 중국 新女性 형상의 변천」, 『中國現代文學』 第43號, p.168.

4. 李箱과 穆時英 소설의 여성상 비교

제3장에서는 <구인회>와 <新感覺派> 작가들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신여성상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역시 근대를 지향한 작가로서 신감각파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서 신여성상을 재현하였다. 하지만 두 작가의 특수한 성장배경으로 인하여, 두 작가는 그들만의 특수한 여성상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은 그들이 소설의 여성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근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우선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을 다루기로 한다. 또한 두 작가의 성장배경으로 인하여 형성된 여성관이 소설에서 여성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 볼 것이다.

4.1. 李箱과 穆時英의 여성관

1) 李箱

李箱의 본명은 金海卿, 1910년 음력 8월 20일 서울 반정동 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김연창과 어머니 박세창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 3세 때 친 가족을 떠나 백부집으로 양자로 가게 됨에 따라 통인동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다. 그는 실제로는 장손이 아니면서도 장손으로서의 의무감과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고 분가 때 부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큰집에 눌러 살게 됐다.⁵⁷⁾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李箱은 分離不安을 경험하게 되었다.

백부네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李箱은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는 백부 집에서 만난 여성들이다. 李箱이 백부네 집에 있을 때, 줄곧 아들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백모에게 아들이 생기에 되는데, 백모는 자기 아들 대신 사랑을 받는 李箱이 못마땅하였다.⁵⁸⁾ 이로 인하여 백모한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백부에게 또 후

57) 정노천, 「李箱문학에 나타난 性 研究」,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8.

처가 있었는데, 그 후처에게는 문경이라는 李箱 또래의 딸이 있었다. 백부의 사랑은 받는 李箱은 후처와 문경에게도 못마땅한 존재였다. 李箱은 백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못마땅한 존재로 굉장한 냉대와 질시를 받는 삶을 살았다. 李箱은 이러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여성공포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훗날 李箱의 작품 중 여성 모독이라는 양갓음으로 노출되게 된다.

李箱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여인은 금홍이와 변동립이다. 술집 작부인 금홍이와 이화여전 영문과를 나온 당시의 인텔리 여성으로서의 변동립은 李箱의 작품에서 상당히 다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금홍과 가까이에 있는 작품은 「봉별기」와 「날개」이고, 변동립과 가까이에 있는 작품은 「단발」, 「실화」, 「동해」, 「종생기」 등이다.

李箱은 1933년에 폐결핵으로 다니던 총독부를 금만 두고 백천은천으로 요양을 떠난다. 거기에서 李箱의 문학작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금홍이를 만나게 된다. 요양지에서 李箱은 “사흘을 못 참고 기어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 세워 밤에 장고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⁵⁹⁾가 술집 작부인 금홍이를 만나 동거를 한다. 이 만남을 축으로 하는 소설이 「봉별기」이다. 李箱은 금홍이와의 행복한 만남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錦紅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內外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錦紅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約束이나 다름없다.

錦紅이는 겨우 스물한살인데 서른한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왔다. 서른한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錦紅이가 내 눈에는 열일곱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錦紅이 눈에 마흔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其實 스물세살이오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똑 여나른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絢亂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봉별기」 중)

58) 李箱의 누이동생 김옥희(1916~)는: “처음 공업학교 계통의 교원으로 계시다가 나중엔 총독부 기술직으로 계셨던 큰아버지 김연필 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오빠를 양자 삼아 데려다 길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시던 큰어머니께 작은 오빠가 생겼으니 큰오빠의 존재가 마땅치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김윤식, 『李箱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2001년, p.416)

59) 김윤식 엮음, 『李箱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p.348.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李箱에게 있어서 금홍이는 ‘서른한살 먹은 사람보다’나을 정도로 농익은 면모를 보이는 한편, ‘열일곱살 먹은 소녀’로 보일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李箱의 문우 윤태영의 말에 의하면 금홍이는 보들레르의 흑인 혼혈 정부 잔 뒤발과 방불한 성적 매력을 풍겼었고, 키는 크지 않고 감쪽했으나 한번 껴안아보고 싶었던 충동을 가졌을 만큼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부 출신의 금홍이와의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비록 함께 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李箱의 생애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여겨진다.

「날개」는 1936년 9월 『朝光』에 발표된 李箱 소설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날개에 나타나는 금홍은 실제에 있어서 당시의 지식인을 몽롱한 상태로 길들이는 식민지 사회의 표상적인 존재이다. 금홍은 성의 교환가치화를 거부하고 분연히 비극적 삶의 거처인 유곽을 외출하려 할 때 실존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괴리는 그를 다시 방으로 내몰고 만다.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 참여는 매음의 현장에서 아내와의 극적 만남으로 대응된다. 결국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먹여 문제아를 잠재우는 사회에서 그가 기도한 완전한 외출은 잊어버린 날개를 찾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60)

금홍이가 떠나고 나서 李箱은 변동림과 결혼을 하게 된다. 변동림은 금홍이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변동림은 이화여전 영문과를 나온 당시의 인텔리 여성⁶¹⁾으로 시대적으로 신여성이라고 불리우는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다.

李箱은 1937년 2월 12일 거리에서 사상범으로 오인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3월 16일까지 34일간 유치장에 감금되었고,⁶²⁾ 1937년 4월 17일 새벽 이 세상을 떠났다.

2) 穆時英

무스잉(穆時英)은 1912년 3월 14일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났고⁶³⁾, ‘과양(伐揚)’·

60) 정노천, 앞의 논문, pp.39~40.

61) 신주철, 「이상의 작품을 통해 본 이상과 주변 인물들」, p.165.

62) 김한성, 위의 논문, p.9.

63) 과거에는 무스잉(穆時英)의 출생지가 저장성(浙江省) 츠시현(慈溪縣)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 무스잉(穆時英)의 동생 무리젠(穆麗娟)이 그의 고향은 상하이란 말로 인하여 무스잉(穆時英)의 출생지는 재검토되고 있다. 최근 무스잉(穆時英)의 연보를 편찬한 리진(李今)은 무스잉(穆時英)의 수필 「무제(無題)」(1938.10-11.)중 “언제쯤이면 나를 탄생시킨 도시로 돌아갈수 있을까?(几时才能回到这诞生了我的都市里

‘니밍쯔(匿名子)’ 등 필명을 사용했었다. 아버지 무징팅(穆景庭)은 저장성(浙江省) 인현(鄞縣) 사람이고, 어머니 스크핑(石萃鳳)은 장쑤성(江蘇省) 창수(常熟) 사람이다. 아버지 무징팅(穆景庭)은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부동산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무스잉(穆時英)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화려한 유년 시절을 보낸다. 이러한 화려한 시절은 16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황금 거래소(金子交易所)가 파산함으로써 인하여 끝을 맺게 되며, 그때로부터 생활이 영락하였다.

무스잉(穆時英)은 1929년 17살에 광화대학교(光華大學) 서양문학학과(西洋文學系)에 입학하였다.

1930년 2월 15일, 『신문예(新文藝)』 64제1권 제6호에 「우리의 세계(咱們的世界)」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극하였다. 그 후로 19살 되던 해, 1931년 10월 2일에 중편 소설 『심심풀이로 전락 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를 발표하였다. 이 책의 편집자 조우자비(趙家璧)의 말에 의하면 이 책을 완성 했을 무렵, 무스잉(穆時英)이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을 실시하였고, 여학생 기숙사도 새로 세워졌다고 한다. 그 시절 무스잉(穆時英)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여학생이 있었고, 나중에 무스잉(穆時英)은 그 여학생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편집자 조우자비(趙家璧)은 『심심풀이로 전락 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은 무스잉(穆時英)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설화하여 근대적 도시생활을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⁶⁵⁾

1932년 1월 20일, 무스잉(穆時英)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인 『남북극(南北極)』이 호풍서국(湖風書局)에서 출판되었다. 일주일 후인 1월 28일, 일본은 제1차 상하이 사편(1·28사변)을 일으켰다. 3개월이나 지속된 전쟁으로 상하이의 경제·문화 및 민생(民生)은 격심한 파괴를 당했으며 거의 모든 잡지가 정간되었다. 문단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스저춘(施蜃存)은 현대서점(現代書局) 사장의 요청을 받아 『현대

去呢?)”란 구절을 예로 들면서 ‘도시’는 상하이(上海)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상하이(上海)가 무스잉(穆時英)의 출생지라고 말하고 있다. 하여 본고는 무리췌(穆麗娟)의 말을 기준으로 무스잉(穆時英)의 출생지를 상하이(上海)로 볼 것이다.

64) 중국 신감각과 작가 류나오우(劉呐鷗), 스저춘(施蜃存)가 처음으로 만든 잡지는 『무궤열차(無軌列車)』이다. 『신문예(新文藝)』는 류나오우(劉呐鷗)과 스저춘(施蜃存)이 『무궤열차(無軌列車)』를 이어서 발행한 두 번째 동인 잡지이다.

65) 這套叢書主編趙家璧回憶說：“我向他約稿時，他的成名作《南北極》正在《小說月報》上刊載。他給我的一個中篇，題名《被當作消遣品的男子》。那時，我們學校已實行男女同校，新的女生宿舍也蓋起來了，有一個女同學開始和他搞得火熱，隨後把他丟了。于是他把他的生活經歷用表現都市生活的新的技巧手法和意境，創作了這篇富有意識流風格的小說。”(趙家璧：《我編的第一部成套書 - <一角叢書>》，《編輯憶旧》，三聯書店，1984年，第33頁)

『현대』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이 잡지는 같은 해 5월 1일 정식으로 간행되었으며, 제1차 상하이사변 이후 상하이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을 보인 대형 간행물이었다. 『신문예(新文藝)』가 정간된 후 『현대(現代)』는 사실상 신감각파의 본거지로 사용되었다. 신감각파의 다른 이름인 ‘현대파(現代派)’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신감각파는 『현대(現代)』지를 거점으로 발전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무스잉(穆時英)도 그의 창작에서 최고봉에 오르게 되었다. 무스잉(穆時英)은 『현대(現代)』지에 총 11편의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스저춘(施蜚存)이 편집장으로 있는 기간에는 거의 매 호에 한 편을 발표하였다.⁶⁶⁾

1932년 11월 1일 『현대(現代)』제2권 제1기에 무스잉(穆時英)의 「상하이의 폭스트롯(上海的狐步舞)」가 발표 되었다. 그 이듬해, 1933년 2월 1일, 무스잉(穆時英)은 『현대(現代)』제2권 제4기에 「나이트클럽의 다섯사람(夜總會里的五個人)」이 발표 되었고, 이는 무스잉(穆時英)의 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⁶⁷⁾

같은 시기 『현대출판계(現代出版界)』에 「나의 생활(我的生活)」이라는 산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무스잉(穆時英)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토요일에는 상해에 놀러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우선 남자친구들을 만난 다음 슬그머니 여자친구들을 불러내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셨다.

그는 “나는 어엿한 청년이다. 나는 태양을 사랑하고 불도 사랑하며 장미를 사랑한다. 또한 모든 명랑하고 활기에 찬 것 들을 좋아한다. 나에게서는 영원히 ‘실망, 피곤, 비관’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 마냥 깊은 곳에, 이것은 눈물도 아니고 한순간 쓸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친구나 애인이 채워 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로움이 찾아들 때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 있기만 한다. 그것은 나에게서 이미 늙어버린 심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것과 자극 적인 것을 즐기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 … 가끔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럴 땐 한마디 말도 하기 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귀찮다. 하지만 자살은 하기 싫다. 오해

66) 김명학, 「박태원과 목시영 소설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p.27.

67) 《夜總會里的五個人》被人爲“是穆氏的短篇中最爲成功的一个：不論是修辭，技巧，結構都洗練得純美，達到整體的統一，誠是文字藝術上的珍品”。（楊之華：《穆時英論》，1940年8月11日，南京《中央導報》第1卷第5期）

하지 마라,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⁶⁸⁾

무스잉(穆時英)은 「자서전(自序)」에서 『심심풀이로 전락 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에서는 심심풀이 대상으로서의 슬픔과 우울함을 나타내려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었고, 『공동묘지(公墓)』에서는 이른 봄의 달콤한 로맨스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폭스트롯(上海的狐步舞)」는 기교적인 시험으로서 1931년 중국의 상하이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5편 「밤(夜)」, 「떨어진 연꽃(蓮花落)」, 「나이트클럽의 다섯사람(夜總會里的五個人)」, 「검은 목단(黑牡丹)」 그리고 「CRAVEN "A"」를 쓰게 된 동기는 거의 비슷한 바, 사회적으로 몰락한 pierrot를 표현해 내고 싶었다고 한다.⁶⁹⁾

1934년 6월 23일 무스잉(穆時英)은 무녀(舞女) 처우페페(仇佩佩)와 결혼을 하였다. 무스잉(穆時英)은 처우페페(仇佩佩)를 데려오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스잉(穆時英) 결혼 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형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였고, 도박과 나이트클럽이나 무도회장과 같은 오락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사실 무스잉(穆時英)은 12살 나던 해에 부모님에 의해 혼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시절 무스잉(穆時英)이 갖은 애를 써가며 혼약을 무효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어쩔 수가 없어서 가출까지 시도한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봉건사회 인습에 의하여 무스잉(穆時英)이 가정의 호주가 되었고, 모든 일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무스잉(穆時英) 원래의 혼약을 깨고 자신이 사랑하는 처우페페(仇佩佩)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생활 경력은 그의 대부분 작품의 배경을 술집, 무도회장, 나이트클럽 등의 근대적 오락장소를 배경으로 지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한 무스잉(穆時英)은 반봉건·반식민지 사회의 중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기형적 근

68)星期六便到上海来看朋友,那是男朋友,看了男朋友,便去找个女朋友偷偷地去看电影,吃饭,茶舞。他说:我是顶年青的,我爱太阳,爱火,爱玫瑰,爱一切明朗的,活泼的东西;我是永远不会失望,疲倦,悲观的。”“可是同时我却在心的深底里,深藏着一种寂寞,海那样深大的寂寞,不是眼泪,或是太息所能扫洗的寂寞,不是朋友爱人所能抚慰的寂寞,在那么的时候我只有揪着头发,默默地坐着;因为我有一颗老了的心。我拼命地追求着刺激新奇,使自己忘了这寂寞,……有时突然地,一种说不出的憎恨,我不愿说一句话,不愿看一件东西,可是又不愿自杀——这不是懦怯,因为我同时又是挚爱着世间的。”(李今,「穆时英年谱简编」,『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2005年第六期,p.247.)

69) 嚴家炎·李今,『穆時英全集』第1卷,北京:北京出版社出版集團&北京十月文藝出版社,pp.233~236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하이(上海)의 근대문명의 변화함과 방탕함, 현대인의 광기와 정신적 퇴폐를 소설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4.2. 李箱과 穆時英의 소설 속의 신여성상

위에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말 했듯이 두 작가는 서구를 동경한 작가로서 적극적으로 근대적 문물들을 수용하였다. 때문에 <구인회>나 <新感覺派>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작가 역시 과감히 가부장제도에 도전하는 신여성상을 구성하였다.

가부장제도는 성차별로부터 시작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가부장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정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의 여성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여성의 근대적 의식이 성장하고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가부장제도 속에서의 남성들의 절대적 권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는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에서도 보여 진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사죄하였다. 그것은 네 오해라고

나는 사실 밤이 껍이나 이숙한 줄만 알았던 것이다. 그것이 네 말마따나 자정 전인 줄은 나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너무 피곤하였었다. 오래간만에 나는 너무 많이 걸은 것이 잘못이었다. 내 잘못이라면 잘못은 그것밖에는 없다. 외출은 왜 하였냐고?

(「날개」 중)

그랬더니 이걸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될 것을 그만 딱 보아 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일초 여유도 없이 핵 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턱살을 잡는 것이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게

가 그냥 나뒹그러졌다. 그랬더니 아내는 넘어진 내 위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납죽 엎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덩싹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날개」 중)

위의 예문은 ‘내’가 아내의 매춘을 목격한 장면이다. 매춘을 목격한 나는 ‘냉큼 미닫이를 닫’아 버리고, 매춘을 들켜버린 아내는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내 살을 함부로 물어 뜯’는다. 이는 가부장제도가 부여한 남성의 힘 있는 권위자와는 극과극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성으로서의 가족을 부양 할 경제력도, 사회적 호소력도 상실한 무능한 모습이다. 남성의 무능한 모습은 가부장제도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력의 중심이 여성에게로 옮겨감으로써 시대적으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지닌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사회적인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사회적인 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⁷⁰⁾

이 가련한 신부가 지금 적수공권으로 나갔다. 내 짐작에 쌀과 나무와 숯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나간 것일 것이다.

그동안 나는 심심하다. 안집 어린 애기 불러서 같이 놀까

(「동해」 중)

위의 예문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임무는 여성이 걸머지고 있다. 신부는 ‘쌀과 나무와 숯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나서고, ‘나’는 집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전통적 가부장제도가 지닌 성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표현되었다.

내 방 미닫이 위 한걸에 칼표딱지를 넷에다 낸 것만한 내 —아니!내 아내의

70) 나은진, 「이상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여성문학연구』, p.87.

명함이 붙어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날개」 중)

위의 예문에서는 그의 방에 붙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도 아닌, 아내의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할 사회적인 경제활동도 이상소설에서는 아내에게로 넘어가며, 남편은 주로 아내에게 얹혀살면서 낮에는 방에서 뒹굴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낮잠이나 자는 것으로 묘사된다. 남녀 간의 신체적 지배권력 역시 정상으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었다.⁷¹⁾

李箱의 소설에서는 전통적인 외형을 지닌 여성상을 벗어버린 여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여성은 적극적인 행동양식을 지닌 신여성상으로 보여 진다.

「중군요- 교수-, 제가 제 맘대로 교수를 사랑해도 좋지요? 안 되나요? 괜찮지요? 괜찮겠지요 뭐? 단발했습니다. 이렇게도 흥분하지 않는 제 자신이 그냥 미워서 그랬습니다.」

단발? 그는 또 한번 가슴이 뜨끔했다. 이 편지는 필시 소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게 의논없이 소녀는 머리를 잘랐으니, 이것은 새로워진 소녀의 새로운 힘을 상징하는 것일 거라고 간파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눈물이 났었다. 왜?

머리를 자를 때의 소녀의 마음이 필시 제 마음 가운데 제 손으로 제 애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애인으로 하여금 저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명령하게 한, 말하자면 소녀의 끝없는 고독이 소녀에게 일인이역을 시킨 것임에 틀림없었다.

(「단발」 중)

‘단발’은 1930년대 사회적으로 유행을 불러일으킨 헤어스타일이다. 여성은 단발을 함으로써 근대적인 형상을 표출하려 하고 있고, 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그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李箱 소설에서는 가부장제도의 성역할을 뒤집어 놓는다. 가정에 있어야 할 여성은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여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남성은 집에 있다. 하여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은 여성에게 떠맡겨 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

71) 나은진, 위의 논문, p.88.

을 하여 자아성취를 하는 신여성상으로 보여 진다. 李箱 소설에서는 성역할이 뒤집어 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표출에도 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노력도 한다. 이 부분 역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밝히는 신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반식민지·반봉건 사회에 처해 있는 중국 사회와 가부장적 유교의식은 남성들에게도 압력을 가해왔었다. 남성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남성들에게 사회적인 책임과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외적인 침략과 내적인 정치세력의 몰락은 사회적인 빈곤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들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힘들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무능함과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가부장제도로부터의 탈출은 여성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가부장제도가 부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아마 이러한 사회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성들이 여성들과 함께 여성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성해방운동을 추진시켰을 것이다. 5·4 신문화 운동은 사회적으로 ‘자유연애’라는 기치를 내 걸고, 여성들에게 가정으로부터 탈출하여 사회로 향할 것을 호소하였다.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은 대부분이 남녀의 사랑이 위주로 된 작품이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벗어나 나이트클럽이거나 바(bar)와 같은 근대를 상징하는 장소들이다.

“창백한 얼굴에 조금은 초췌해 보이는 느낌의 얼굴, 많은 이들과 입맞춘한 입술, 머루 알 같은 까만 눈동자,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 나는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

(「밤(夜)」중)

“我爱憔悴的脸色，给许多人吻过的嘴唇，黑色的眼珠子，疲倦的神情……”

(「夜」72)中)

위의 예문의 장소 역시 나이트클럽이다. 위의 예문은 「밤(夜)」중 수부(水手)가

72) 嚴家炎·李今 編, 위의 책, p.326.

나이트클럽에서 인디(茵蒂)를 만나서 한 말이다. 그가 반한 여성은 조신한 현모양처가 아니라 정조관념이 없는 방탕한 여성이다. 이처럼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의 정조관념만 중요시 하던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남성이 정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 또한 지키지 않아도 괜찮으며 남성과 여성을 모두 도덕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으로 남녀평등을 구성하였다.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에서 남자는 여자의 향락적 소비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 속에서의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추락해 있는 상태이다.

“ 참 .알고도 모를 일이야 , 나같이 하늘같은 대장부가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다니 …여자를 보면 모기가 피보듯이 오금을 못쓰겠어. 나는 우리처럼 가난한 여인은 별로야 , 손은 크고 거칠며 커다란 입에 눈섭은 거마리마냥 길고 걸음걸이도 메기마냥 절룩절룩 하지 . 거기에 마른나무가지처럼 마른데다 추하기까지 해 .때로는 남장여장이 아닌지 착각하기도 하지! 그래도 하이힐 신은 여자가 좋아 . 반짝이는 스타킹에, 몸에 꼭 들어 맞는 원피스, 앵두같이 빨~간 입술 ,약간은 부풀어 오른 머리, 투명하고 뽀얀 피부 , 이런게 바로 여자지 ! 나 자꾸만 그녀들의 뒤만 쫓아 다니게 돼, 아 ! 뒤모습을 바라만 봐도 깨물어 놓고 싶어 !”

(「被當作消遣品的男子」중)

“可是，不知怎么的，像我那么的顶天立地地男儿汉也会爱起女人来啦，见了女人就像蚊子见血似的。我不十分爱像我们那么穷的女人，妈的，一双手又粗又大，一张大嘴，两条粗眉，一对鲑鱼，走起道来一撇一撇的，再搭着生的干巴巴的，丑八怪似的—我真不明白她们会不是男人假装的！我顶爱那种穿着小高跟儿皮鞋的；铄亮的丝袜子，恰合式的旗袍，那么红润的嘴，那么蓬松的发，嫩脸蛋子像挤得出水来似的，是那种娘儿，那才是女人哇！我老跟在她们后边走，尽跟着，瞧着她们的背影—阿，我真想咬她们一口呢！”

(「被當作消遣品的男子」73)中)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 듯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에서

73) 嚴家炎·李今 編, 『穆時英全集』第1卷, 北京:北京出版社出版集團&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年, p.245.

남자는 여자의 향락적 소비품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에게 비취지는 여성들은 정력이 충만하고 유혹적이며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대화를 보면 봉건적인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성적으로 추락한 모습을 보인다.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의 추락으로 여성은 가부장제도가 부여한 정조관념으로부터 탈출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무스잉(穆時英)은 남녀의 사랑을 설정 할 때, 그들의 신분 같은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남녀평등을 실현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모두 서구를 동경한 작가들이다. 그들 역시 다른 <구인회>와, <新感覺派>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윤리의식을 반대하였다. 두 작가 모두 권위적인 남성상의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나약한 남성상을 보여주어, 전통적인 남성상에 충격을 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李箱은 소설 속에서 남성의 힘을 약화시켜 남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존재로 내세운다. 이는 남성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가부장적 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로써 가부장제도는 무너지게 된다. 무력화 된 남성은 여성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억압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李箱은 이와 같은 설정으로 가부장제도에 대해 반항하고 있었다.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에는 남성과 여성을 성적으로 똑같이 추락시켜, 그것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이 가부장제도에서 탈출하였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또한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에는 신분제도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봉건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의 벽을 허물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서는 가정을 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이트클럽이나 바(bar)와 같은 근대적인 오락 장소를 등장시킨다. 그의 소설에는 봉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주위의 환경부터 사랑의 태도까지 전부 근대의 모습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가부장제도의 틀을 깨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두 작가가 서구를 동경하고, 봉건적 가부장제도가 남성에게 부여한 성역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4.3. 두 작가의 여성관이 갖는 한계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은 모두 근대적 문물을 수용한 작가들이지만,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형성된 여성관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그들만의 특수한 여성상을 구성하고 있다.

4.3.1.. 李箱 소설의 여성 이미지

1) 여성에 대한 복수 심리에 의해 형성된 여성상

성 유희의 극에 달하는 양태는 더욱 적극화, 유희가 아닌 성 모독을 통해 성을 통한 문학적 복수 특히 여성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에서 보았듯이 李箱은 여성공포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엄마로부터는 버림을 당한 분리 불안을, 백모에게서는 맞고 꼬집었던 무서움을, 문경으로부터는 늘 패배해야만 했던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⁷⁴⁾ 李箱의 작품에서 남성은 늘 무기력하고 여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우(禹)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아랑을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딸대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 놓은 우씨와 금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결방에 묵고 있는 C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C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봉별기」 중)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内外는 참 사랑하였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봉별기」 중)

74) 김한성,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p.27.

위의 예문에서 보여 지듯이 ‘나’와 ‘금홍’이의 관계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나’는 ‘금홍’에게 다른 남자까지 소개시켜주면서 ‘금홍’이가 오락이라고 말하는 매춘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李箱이 아내를 설득, 외간 남자를 따라 독탕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 사실을 중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빌어 아내를 모독함으로써 모든 여성을 모독, 소설로 모든 여성에게 양감음하고 싶었던 소설의 복수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소설의 복수란 소설을 수단으로 하여 양감음하는 소설을 복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⁷⁵⁾ 李箱은 ‘금홍’이를 등장 시킨 작품에서 ‘아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경우의 ‘아내’는 오히려 반어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⁷⁶⁾ 李箱은 ‘아내’라는 용어로 ‘아내’답지 않은 ‘금홍’이의 처신을 반어적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 시간 동안을 나는 이렇게 초조하게 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불을 책 젖혀 버리고 일어나서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비칠비칠 달려갔던 것이다. 내게는 거의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아내 이불 위에 엎드려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오 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 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

(「날개」 중)

정신이 한결 난다. 나는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 돈 오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알아내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 보았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 온 내 자신이 어떻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 몰랐다. 나는 어깨춤이 났다.

(「날개」 중)

李箱은 성에 대한 모독을 철저히 감행했는데, 왜냐하면 신성한 부부관계마저 돈으로 사고파는 성의 상품화는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 즉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철저히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물신주의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5) 정노친, 「이상 문학에 나타난 성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6.

76) 洪廢杓, 「李箱소설의 女性」, 女性問題研究, Vol.17 No.-, 1989, p.318.

물신을 신봉하다 보면 정신은 외면되고 그 대신 물신적 가치가 지배원리로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내적 사랑보다는 관능적이고도 쾌락적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성한 부부관계조차 돈으로 성을 거래했다면 이는 성에 대한 절대적 모독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성에 대한 모독은 모독의 대상이 금홍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기도 한다.⁷⁷⁾

2) 동식물로 보는 여성상

李箱이 인식한 타자로서의 여성성과 자신의 자아정체성으로서의 남성성은 각각 식물과 동물로서 응결된 이미지로 나타난다.⁷⁸⁾

18가구에 각기 별려 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는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별 안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 아니 그 꽃에 매어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날개」 중)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중략)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넘죽넘죽 받아먹기는 했으나 ...

(「날개」 중)

식물적 여성은 전통적 여성성이고, 가축적인 남성은 가부장적 지배권을 포기한 남성을 상징하고 있다.

아내에게무엇을물어보리요?그러니까아내는대답할일이생기지않고따라서부부는식물처럼조용하다.그러나식물은아니다.아닐뿐아니라여간동물이아니다.

(「지주회시」 중)

77) 박진환, 『이상문학연구』, 조선문학사, p.137.

78) 오생근·김윤식 편, 「동물의 이미지를 통한 상상의 세계」, 『이상문학전집』 4, pp.187~189.

李箱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가축이나 식물이라 규정할 때, 타자 화 된 여성과의 관계는 큰 갈등이 없다. 그것은 李箱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신의 의무를 여성에게 넘기고 여성적 성 역할을 차지했을 때 그는 가축이나 동물로서 편안하다.⁷⁹⁾ 하지만 부부가 ‘여간 동물이 아닐 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와 가정 사이의 갈등은 강화되는 형태로 나아간다.

「지주회시」는 ‘거미와 돼지가 만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거미는 그와 그의 아내이고, 돼지는 A취인점 전무이다. 카페여급인 아내에게 전무가 말라깽이라고 하자 아내는 양돼지라고 응수하다가 걷어차여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타인을 잡아 끝까지 빨아먹는데도 팔다리만 길게 마른 거미, 타인 속에서 나오는 거미, 그것이 바로 그와 아내가 거미인 이유이다. 돈 잘 벌고 뚱뚱한 카페여급 마유미가 황금알 낳는 계사니이자 화수분이라면 마유미가 번 돈을 털어가는 오(吳) 역시 거미이다. 인간이 아니라 곤충인 거미로, 또 ‘인간이 원후인류로 (역)진화한 형태’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자조적인 자의식의 상징이 된다.⁸⁰⁾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서 인간사회가 스스로왔다. 생활이 스스로왔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날개」 중)

그러나 여기서 李箱이 자신에 대한 동물상징을 여성에 의한 일방적 피해의식만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주회시」에 나타나듯이 부부는 서로 식물이었고, 동시에 거미였던 것이다. 따라서 李箱소설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두 상호간에 동질적인 상상력으로 귀결된다.⁸¹⁾

79) 나은진, 위의 논문, p.92.

80) 나은진, 위의 논문, p.92.

81) 나은진, 위의 논문, p.93.

4.3.2. 穆時英 소설의 여성 이미지

1) 여성에 대한 혐오 심리에 의하여 형성된 여성상

가정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무스잉(穆時英)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 또한 대학 시절 무스잉(穆時英)과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날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으로 하여 여성은 무스잉(穆時英)에게 있어서 욕망의 주체인 동시에 원망의 대상이다. 무스잉(穆時英)의 초기 소설에는 여성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을 변덕이 심하고 천박하며 음탕한 존재로서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여성상으로 표현하였다. 「흑선풍(黑旋風)」에서 싸우커얼(小可兒), 「우리의 세계(咱們的世界)」에서 오위원부인(吳委員夫人),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生活在海上的人們)」에서의 취이핑얼(萃風兒)과 큰 형수님... .. 이들은 소설 속에서 모두 외모는 아름답지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탕한 여성상으로 비추어 진다. 이들에 대항하는 남성들은 그녀들을 강점하거나 살인하는 것으로 보복을 감행한다.

무스잉(穆時英)은 소설 중에 몇 편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중, 「팔이 잘린 사람(斷了條胳膊的人)」과 「빈사의 일기(貧士日記)」에서 여성이 ‘아내’라는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팔이 잘린 사람(斷了條胳膊的人)」중, 취이첸(萃娟)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오른 쪽 팔이 기계에 의하여 잘려 나간다. 장애자가 된 남편은 공장에서도 해고당하여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아내가 외도할까 항상 불안해하고 의심한다. 하여 성격은 나날이 난폭해지고, 그 화를 아내-취이첸(萃娟)한테 퍼붓는다. 만약 전통적인 현모양처였다면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만, 취이첸(萃娟)은 집을 떠난다. 그는 집에서 나와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 남편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취이첸(萃娟)을 찾아오지만, 그녀는 아들까지도 만나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무스잉(穆時英)은 가정에만 충성 하는 여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여성상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여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다. 무스잉(穆時英)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됨으로 하여 몰락하였다. 반식민지·반봉건적 중국 사회에서 집안의 몰락은 전통적 가부장제도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은 무스잉(穆時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끊임없이 상

대방에 대한 의심을 자아낸다. 무스잉(穆時英)은 이와 같이 불안한 심리를 가진 자신을 첸이쥘(莘娟)의 남편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첸이쥘(莘娟)의 형상을 통하여 무스잉(穆時英)이 청년시절 만났던 여성이 자신을 떠나간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동물이미지로 보는 여성상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에는 여성을 동식물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에서는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뱀과 고양이가 주를 이룬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느꼈다. ‘참으로 위험한 동물이로구나!’ 그녀는 뱀을 연상시키는 몸과 고양이를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그 자체였다. …… 그녀는 귀엽고 유순하지만 위험성이 느껴지는 동물처럼 …… 온유하면서도 위험한 존재인 그녀, 유혹적인 꽃뱀과 같은 몸매와 온순한 암고양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녀 ……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중)

第一次瞧见她，我就觉得：“可真是危险的动物哪！”她有着一个蛇的身子，猫的脑袋，温柔和危险的混合物。… …在我面前，她的柔顺，这危险而可爱的动物… …温柔和危险的混合物，有着一个猫的脑袋，蛇的身子… …

(「被当作消遣品的男子」82)中)

위의 예문은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중, 남자 주인공이 제일 처음으로 룡웅즈(蓉子)를 만났을 때 첫 인상에 대한 묘사이다. 남자 주인공은 룡웅즈(蓉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성의 육체를 뱀에 비유함으로써 부드럽고 황홀함을 나타 내었고, 고양이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아름다움과 간사함을 나타 내었다. 이는 이 남자가 첫 눈에 룡웅즈(蓉子)의 매력에 빠졌고, 앞으로 그 매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하얀 구름 사이로 암고양이의 얼굴이 비춰졌다. 온유하면서도 웃음을 머금은.”

(「심심풀이로 전락된 남자(被當作消遣品的男子)」중)

82) 嚴家炎·李今 編, 앞의 책, 2008年, p.237.

“白云中间现出了一颗猫的脑袋，一张笑着的温柔的脸。”

(「被當作消遣品的男子」⁸³⁾中)

위의 예문은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룡웅즈(蓉子)를 보고서 한 말이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고양이가 거론 되는데, 이때의 고양이 역시 유희의 의미로 쓰인다.

아래에 고양이가 거론 다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책상에 다가간다, 덮개위에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빨간색 담배통을 가져온다... 그에게 불을 붙여 주었다.

"당신을 Craven'A라고 부를게요, 아가씨"

"방심하지 마세요,, 검은고양이는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요주의 동물이기도 하구요. "

"하지만 검은고양이는 또 행복의 상징이기도하죠"

.....

(「CRAVEN'A」중에서)

(我)便走到她桌子上,把在盖上蹲着只黑猫的红盒子拿了来,给她擦亮了火,点了:

“我叫你Craven'A,小姐。”

“留心,黑猫是带着邪气的。”

“黑猫也是幸福的象征。”

... ..

(「CRAVEN'A」⁸⁴⁾中)

(나를 조이고 있던) 여덟 개의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아름다운 꿈을 거두어 내었다. 두 마리의 하얀 뱀이 서로 영켜 있는 것이 보였다. 속옷과 허리띠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채로,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필자번역:「CRAVEN "A"」중에서)

83) 嚴家炎·李今 編, 앞의 책, 2008年, p.247.

84) 嚴家炎·李今 編, 앞의 책, 2008年, pp.291~292.

解了八条宽紧带上的扣子，我剥了一层丝的梦，便看见两条白蛇交叠着，短裤和宽紧带无赖地垂在腰下，缠住了她。

(「CRAVEN "A"」⁸⁵⁾中)

위의 예문은 「CRAVEN“A”」 중, 위훤이쨌(余慧嫻)이 자신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남자에게 “검은 고양이는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요주의 동물”이라고 경고하였고, 남주인공이 여덟 개의 허리띠를 풀어헤쳤을 때는 이미 “두 마리의 하얀 뱀이 서로 엉켜”있음을 발견하였다.

위의 예문과 같이 여성이 남성의 애간장을 태우는 서술부분을 통하여 여성의 방종과 유혹의 본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자는 고양이처럼 온유하면서도 위험한 동물이다. 고양이의 온유하고 매혹적인 애교는 교활함을 상징하고 이는 여자의 일부 본능을 암시 한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뱀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는 여인의 유연한 몸체와 부드러운 피부를 연상케 한다. 정지상태의 뱀의 모양은 측면으로 누워 있는 여성의 자세와 흡사하고, 움직이는 상태의 뱀은 여성의 유연한 형체와 흡사하다. 또한 뱀의 냉혈적인 동물이라는 성질은 여성의 냉혹함과 여성은 궁극적으로 악의 화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뱀으로 비유된 여성은 육체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무스잉(穆時英)이 생활 속에서 나이트클럽이나 바(bar)와 같은 장소를 드나들면서 소비 형태로 즐겼던 여성들을 표현 한 것이다. 무스잉(穆時英)에게 여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가정을 돌보는 형상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벗어던지고 다만 즐기지만 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에 의하여 형성된 여성상을 비교하여 보면, 공통적으로 여성에게 받았던 상처를 작품 속에 투입시켜, 전통적인 현모양처상과는 상반된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모독을 감행하고 있었다.

85) 嚴家炎·李今 編, 앞의 책, 2008年, p.297.

李箱은 어머니로부터는 버림을 당한 분리 불안, 백모에게서는 맞고 꼬집혔던 무서움을, 문경으로부터는 늘 패배해야만 했던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⁸⁶⁾ 그는 이와 같은 두려움은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부부관계는 두려운 것이었고, ‘그’는 항상 ‘아내’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李箱의 여성공포증을 말해주고 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여성에게 늘 위축되어 있는 李箱은 현실이 아닌 소설 속에서나마 여성에 대한 모독을 감행한다. 그는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여성형상을 구성하여 정신적으로나마 자신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다.

무스잉(穆時英)은 대학시절을 남녀공학에서 보냈다. 이 시절 그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여학생이 있었고, 그 여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떠난다. 무스잉(穆時英)의 가정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주위에서 탐내는 사윗감이었고, 서로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었다. 생활이 추락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사라졌었고, 그나마 사랑하던 여인마저 그를 떠났다. 때문에 무스잉(穆時英)에게 여성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속물근성으로 다가왔었고, 소설 속에서도 여성을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퇴폐적인 여성상으로 그렸다.

여성에 대한 혐오심리에 의하여 형성된 이 부분의 여성상은 한·중 신감각과 작가들 중 이상과 무스잉(穆時英)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여성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을 동식물에 비유함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李箱 여성보다는 자신을 가축이나 벌레로 비유를 해가면서 풍자적 효과로서 타락한 남성의 인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李箱의 성장과정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은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 李箱이 남다른 재능을 과시할 때 백부의 총애와 더불어 백모의 눈총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李箱이 무능함을 보일 때에는 백모의 눈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여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을 식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한다. 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권을 포기한 것이다.

무스잉(穆時英)은 여성을 뱀이나 고양이와 같은 유혹적이고 교활한 동물로 규정짓는다. 그는 李箱과는 달리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일찍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근대적 산물을 맘껏 즐기면서 살았던 그가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트클

86) 김한성, 앞의 논문, p.27.

럽, 술집과 같은 곳으로의 출입을 계속 했다. 이로부터 볼 때, 그가 여성을 뺨이나 고양이로 규정짓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체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이 위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성장 배경과정에 형성된 여성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 신감각과 소설 속의 여성상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중 문학의 비교 연구는 영향관계라는 고정적 관념으로 인하여 고전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현대문학에서의 비교 연구는 부진한 편이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한·중 신감각과 소설 속의 여성상에 대한 비교 연구는 두 나라의 현대문학 및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신감각과 작가 들 중, 비슷한 성향을 가진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을 위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신감각과 소설에는 근대적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여 본 논문은 한·중 신감각과 소설 속 여성상의 비교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장에서 한·중 양국의 여성들이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 의식의 성장과정을 우선 살펴보았다. 한국은 개화기를 통하여,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로 여성들이 점차 근대적 사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처음 근대화 교육의 발달은 모두 교회여자 학교의 설립이었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여성교육을 확대하고 여성해방이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한·중 두 나라에서는 1910년에 모두 신여성이라 불리 우는 근대적 여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간행물도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중 두 나라는 각각 식민지, 반봉건 반식민지 상황에서 발전한 근대화이기에 그 뿌리를 든든히 다지지 못하였고, 남아있는 봉건의식과 제국주의와의 충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이 시기의 여성들은 봉건적 사상과 근대적 사상의 복합체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한·중 신감각과 소설 속의 신여성상을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근대적 사상들은 자생적인 역사적 발전경로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매개로 하였기에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가 극심하게 충돌되고 있었다. 한·중 두 나라의 신감각과 소설들에서는 봉건적 가부장 제도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여성상과 근대적 사상과 봉건적 인습의 갈등이 빚어 낸 여성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 속의 여성상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점 있었다.

첫째, 전근대적 유교전통—가부장제, 윤리인습, 정조관념으로부터 해방 되는 여성상이다. 이 부류의 여성상을 수립함에 있어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은 소설 속에서 남성을 무력화 시켜 가부장제도가 부여한 힘을 잃게 함으로써 전근대적 여성상과는 완전히 다른 ‘근대적’ 여성상을 수립한다.

둘째, ‘요부’형의 여성상이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은 여성과 얽힌 특수한 성장배경 때문에 소설을 통하여 여성에게 복수하려는 공통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방탕하고 유혹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그렸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소설 속의 여성상을 살펴보았을 때,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상징적 여성이미지로 李箱과 무스잉(穆時英) 소설 속에는 식물과 동물이 나타난다. 李箱은 자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여 동물의 형태로 추락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무스잉(穆時英)은 뱀이나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에 여성을 비유함으로써 여성의 유혹성과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성장배경으로부터 형성된 여성관과 관련이 있다. 비록 두 작가는 서구를 동경하고, 근대적 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자체의 봉건사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었다.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여성관에 의하여 형성된 여성상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한·중 두 나라의 <구인회>와 <新感覺派>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 李箱과 무스잉(穆時英)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비교하여 두 작가가 근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작가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봉건인습으로 인하여 모순적인 여성상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두 작가는 근대적이면서도 봉건적인 모순된 작가임을 입증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기본자료

1) 한국

- 이대준, 『해방전후』, 서울: 조선문학사, 1947.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김광언, 『풍수지리- 빛깔있는 책들 140편』, 서울: 대원사, 1994.
김윤식, 『李箱문학전집』 2-5, 서울: 문학사상사, 1995.
장수익, 『천변풍경』,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2) 중국

- 劉旭 編, 『都市風景線』,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4年.
嚴家炎·李今 編, 『穆時英全集』, 北京: 北京出版社出版集團&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年.
吳福輝 編, 『施蛰存作品新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年.

■ 단행본

1) 한국

- 울리히 바이스수타인, 『비교문학론』, 이영유 역, 홍성사, 1981년.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3년.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년.
趙東一 外著, 『韓國 近代文學의 爭點』,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년.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년.
李甫永, 『李箱의世界』, 株式會社 金文書籍, 1998.
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년.
정성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년.
문근섭·문윤걸·국선희, 『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2001년.

김재인 외,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년.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년.
 고갑희,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년.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년.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년.

2) 중국

張大明, 『三十年代文學札記』,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896年.
 嚴復, 『嚴復道文鈔』, 臺北: 世界書局, 影印本, 1971年.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6年.
 計榮主編, 『中國婦女運動史』, 湖南: 湖南出版社, 1992年.
 喬以鋼, 『中國女性的文學世界』, 湖北: 湖北教育出版社, 1993年.
 康正果, 『女權主義女文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年.
 李小紅, 『性別的中國』, 三聯書店, 1994年.
 遊友基, 『中國現代女性文學審美論』, 福建: 福建教育出版社, 1995年.
 徐志孝, 『中國比較文學全史』, 湖北: 湖北教育出版社, 1996年.
 張岩冰, 『女權主義文論』,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98年.
 王文英, 『上海現代文學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年 6月.
 王吉鵬等, 『百年中國女性文學批評』,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2001年.
 李玲, 『中國現代文學的性別意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年.

■ 학회논문

1) 한국

유영희, 「10년전의 졸업생으로 본 현시 여학생」, 『신여성』 4월호, 1926년.
 김옥엽, 「가정제도와 성문제의 동향」, 『신여성』 12월호, 1931년.
 유철수, 「성애해방론-건전한 성적 자유의 획득」, 『동광』 제24호(8월), 1931년.
 황신덕, 「조선부인운동은 어떻게 지내왔나」, 『신가정』 4월호, 1933년.

- 주요섭, 「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4월호, 1934년.
- 이원조, 「현대여성의 변민」, 『여성』 제5권 제11호, 1940년.
- 김효중, 「비교문학적 방법과 국문학연구」, 『영남어문학』 제8집, 1981년.
- 洪廢杓, 「李箱소설의 女性」, 『女性問題研究』 Vol.17 No.-, 1989년.
- 劉麗雅·宋賢鎬, 「1930년대 한·중 소설의 여성문제 비교연구」, 『비교문학』 제20집, 1995년.
- 김은전, 「구인회와 신감각파」, 『신청어문』 24, 1996.10.
- 김경옥, 「이상 소설에 나타난 ‘단발’과 유희자로서의 여성」, 『冠嶽語文研究』, Vol.24 No.1, 1999년.
-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女給 고찰-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女性文學研究』 Vol.- No.3, 2000년.
- 宋賢鎬, 「현진건과 老舍의 비교연구-한·중 현대소설의 賣女주제연구」, 『비교문학』, 제25집, 2000년.
- 김면수, 「이상 소설과 ‘妖婦’-錦紅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No.5, 2001년.
- 나은진, 「이상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여성문학연구』 Vol.-No6, 2001년.
-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 - 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년.
- 김형목, 「1920-1924년 여자야학 현황과 성격」,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2집, 2003년.
-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2005년.
- 김성은, 「1930년대 조선여성교육의 사회적 성격」, 『이대사원』 제29집, 2006년.
- 홍지순, 「현대 중국 新女性 형상의 변천」, 『中國現代文學』 第43號, 2007년.
- 윤혜영, 「근대 중국의 신여성」, 『漢城史學』 第二十四輯, 2009년 2월.

2) 중국

- 鮑家麟, 「辛亥革命時期的婦女思潮(1898-1911)」, 『中華學報』, 第1卷, 第1期, 1974년.
- 嚴家炎, 「論三十年代的新感覺派小說」, 『中國社會科學』, 1985年 第一期.
- 應國靖, 「論中國三十年代的“現代派”」, 『中國社會科學』, 1985年 第一期.
- 王連生, 「穆時英小說人物原型簡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1年第3期.
- 楊迎平, 「同一層面的不同言說-新感覺派小說中的女性形象」, 『文藝理論研究』, 2000年 3月.
- 章長城, 「現代性愛與性愛中的女性」, 『岳陽職業高等轉科學校學報』, 2001年第2期.
- 李 玲, 「穆時英小說中的性愛意識」, 『복건사범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年 1期.

- 李石勇, 「消費社會中產階層生活想像」, 『中山大學學報論叢』, 2005年 第25卷 第4期.
- 胡方紅, 「善良的情感世界同情的女性抒寫-穆時英作品重讀感悟」, 『新疆石油教育學院學報』, 2005年第6期.
- 陳俊芳, 「論新感覺派小說的淵源」, 『邢台職業技術學院學報』第22卷 第4期, 2005年 8月.
- 賀昌盛, 「從“新感覺”到心理分析-重審“新感覺派”的都市性愛敘事」, 『文學評論』, 2006年 第5期.
- 張淑嫻, 「感傷的都市色調—中國新感覺派小說解讀」, 『社會科學家』第2期, 2006年 3月.
- 劉海玲, 「從《新女性》看中國現代“新女性觀”的演變」, 『廣東社會科學』, 2006年第4期.
- 胡建偉, 「世紀末思潮澆灌下的都市之“花”—論劉呐鷗·穆時英爲代表的新感覺派小說」, 『上饒師範學院學報』第28卷 第5期, 2008年 10月.
- 胡希東, 「1930中國文壇的“新感覺風”」, 『北方論叢』, 2008年 第3期.
- 馬占俊·趙明, 「論新感覺派小說中的傳統特質」, 『綏化學院學報』第28卷 第2期, 2008年 4月.
- 白志堅·郝建國, 「試論新感覺派小說對中國現代文學的貢獻」, 『內蒙古農業大學學報』, 2007年 第4期.
- 陳俊芳·魯虹虹, 「都市中的“自我”迷失者—談新感覺派小說中的女性形象」, 『牡丹江教育學院學報』, 2005年 第4期.
- 周樂詩, 「新小說中新女性形象的意義」, 『婦女研究論叢』, 2009年 No.6 Ser. No.96.

■ 학위논문

1) 한국

- 한은실,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년 6월.
- 오숙희,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년.
- 朴載仙, 「1930年代 作家的 現實認識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년6월.
- 權賢珠, 「中國 近代女子教育制度 成立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년.
- 김지혜, 「한국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Leetty M.Russell의 인간화교육의 관점에서」,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년.
- 尹美英, 「清末民初婦女解放運動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年 4月.
- 胡 薇, 「1930년대 한·중 여성문제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채만식과 老舍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년.
- 황수진,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년.
-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 지윤정, 「근대교육이 여성지식인 형성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 최은자, 「1930년대 박태원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년.
- 肖 霞, 「한·중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11월.
- 손영옥, 「1930년대 여성작가 장편소설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년.
- 김택호, 「이태준 장편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 김상원, 「다나자키준이치로와 이상의 소설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년.
- 俞蓮實, 「청말민초 여성운동의 전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2월.
- 김현정,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여성인식 형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6월.
- 曹惠鉉, 「한·일 근대 신여성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고옥경, 「일제시기 남성지식인층의 여성인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6월.
- 申昌順, 「韓·中 小說의 女性形象 比較研究-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년6월.
- 엄미옥, 「한국 근대 여학생 담론과 그 소설적 재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이수영, 「중국 근대 여성교육론의 특징」,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이남경, 「근대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타자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2월.
- 조홍매, 「채만식과 라오서(老舍)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6월.
- 백해경, 「근대 여성의 등장과 의식의 추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2008년8월.

장운기,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년 11월.

김명학, 「朴泰遠과 穆時英 소설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2) 중국

隨金玲, 「施蜚存筆下的女性形象系列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年 5月.

嚴 華, 「女性主義觀照下的穆時英小說創作」, 汕頭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年 5月.

鄭 艷, 「穆時英小說中的女性形象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年 6月.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번	20087704	과정	석사
성명	한글: 이 금 란 한문: 李 錦 蘭		영문: LI JIN LAN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53-6				
연락처	010-8935-7289 E-mail : lijinlan120@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한·중 신감각파의 여성상에 대한 비교 연구 : 李箱·무스잉 (穆時英) 소설을 중심으로				
	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of Women in Korean and Chinese 'Neo Sense':Major Topic for Lee Sang and Mu Shi-ying Nove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년 8월 25일

저작자: 이 금 란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